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위하여

굿네이버스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 보고서
2016-2020

 굿네이버스



9 791185356365 93330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2020년 현재 48개 국가에서 유엔, 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국제개발사업과 인도적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2016~2020) 굿네이버스가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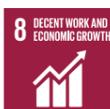
굿네이버스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 보고서
2016-2020

Contents

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코로나19 6

II. 굿네이버스 국제구호개발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8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0
	기아종식, 안전하고 영양이 개선된 식량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 12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1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16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18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22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24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26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2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30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32

약어표

A/S	After Sales Service	구매 후 관리(애프터서비스)
ADC	Annual Data Collection	연간 사업평가 데이터
CDC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지역개발위원회
CDP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지역개발사업장
CFS	Child Friendly Space	아동친화공간
CHW	Community Health Worker	지역보건원
CLTS	Community Led Total Sanitation	주민주도형 화장실개선사업
COVID-19	Coronavirus disease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DRR	Disaster Risk Reduction	재난위험경감
EBS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한국교육방송
ER	Emergency Relief	긴급구호
FCHV	Female Community Health Volunteer	여성지역보건봉사자
GBV	Gender Based Violence	젠더기반폭력
GN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
GN GDA	Good Neighbors Global Development Approach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사업 전략방향과 결과체계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HMG	Health Mother's Group	건강을 위한 어머니 그룹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G	Income Generation	소득증대
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 비정부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국제백신연구소
KCOG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MCH	Maternal and Child Health	모자보건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FI	Micro Finance Institute	소액금융기관

MHM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생리위생관리
MMR	Maternal Mortality Ratio	모성사망비
NFI	Non-Food Item	비식량물품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	소외열대질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SS	Psychosocial Support	심리사회적지원
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GBV	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성·젠더기반폭력
SLTS	School Led Total Sanitation	학교주도형 통합위생사업
SZHC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새마을 제로허거 커뮤니티 사업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경제사회국
UN 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유엔자본개발기금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UN HLPF	United Nations High Level Political Forum	유엔고위급정치포럼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VSLA	Village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마을저축신용그룹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식수위생
WFP	World Food Program	유엔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코로나19

지속가능발전목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뒤를 이어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이다. SDGs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에 집중했던 MDGs에서 더 나아가 SDGs는 빈곤과 불평등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가 이행해야 할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목표로 정의한다.

SDGs 채택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이행 현황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는 매년 7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을 개최하여 SDGs 이행과정을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며, 유엔총회는 4년마다 HLPF를 개최하여 유엔개발체제의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시민사회 또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이행 점검 과정에 참여하여 독립적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가 SDGs 달성에 미치는 영향

2019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virus disease, COVID-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 6,274만 명, 사망자 수 145만 명을 돌파했다(2020.11.30. 기준¹⁾). 전 세계는 보건 위기를 넘어 실업, 식량 부족, 교육 붕괴 현상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한 위기이지만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은 세계 빈곤을 심화시키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인도적 지원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빈곤율이 2019년 8.2%에서 2020년 8.6%로 증가하고, 하루에 1.90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는 6억 3,200만 명에서 6억 6,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만 전 세계 4,900만 명 정도가 극심한 빈곤에 내몰리고, 그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2,300만 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그 다음으로는 남아시아 지역이 1,6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²⁾

SDGs 달성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2020년 지속가능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17개 모든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SDG 1(빈곤퇴치), SDG 2(기아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0(불평등 감소) 달성에 단기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 코로나19가 SDGs 개별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유엔경제사회기구(UNDESA)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⁴⁾



- SDG 1** 소득 손실로 인해 취약한 사회 및 가구들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편입됨
- SDG 2** 식량 생산 및 배분이 중단될 수 있음
- SDG 3** 건강 결과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침
- SDG 4** 많은 학교가 폐쇄됨. 원격 학습의 효과성이 떨어지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원격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임
- SDG 5** 여성의 경제소득이 위기에 처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함.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여성임
- SDG 6** 물 공급 중단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접근은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예방 조치 중 하나인 손 씻기 시설 이용을 방해함
- SDG 7** 에너지 공급 및 인력 부족으로 전기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고, 더 나아가 의료시스템 대응 및 역량이 약화됨
- SDG 8** 소득 감소, 노동시간 감소, 특정 직업의 실업 증가 등 경제 활동이 중단됨
- SDG 11**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위생 조건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음
- SDG 13** 기후 행동에 대한 헌신(commitment) 감소 - 반면에 생산 및 운송 감소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기도 함
- SDG 16** 갈등과 분쟁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방해함. 분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가장 높음
- SDG 17**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가중됨 - 반면에 공중보건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결국 불평등 감소(SDG 10)에 악영향을 미침

2)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CCSA),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3) Cambridge University Press(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4) UN(2020).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1)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 Coronavirus Resource Center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II. 굿네이버스 국제구호개발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30년 동안 전 세계 빈곤지역에서 300만 명의 아동 및 지역주민과 함께 일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이다. '주민 주도(ownership)'와 '통합적 지역개발' 접근을 중심으로 48개 파트너국가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SDGs 달성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사업 수행원칙과 전략을 담은 '국제개발사업 전략방향과 결과체계(Global Development Approach, GDA)'를 수립하면서 8개 전략목표—기아근절, 아동보호, 교육권 보장, 건강권 보장, 지속가능한 환경, 포용·민주적 공동체, 경제적 자립, 재난구호와 인도적 지원—를 SDGs 각 목표와 연계시켰다. 굿네이버스 파트너국가들은 GDA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빈곤퇴치(SDG1), 기아종식(SDG2), 건강과 웰빙(SDG3), 양질의 교육(SDG4), 성평등(SDG5), 깨끗한 물과 위생(SDG6), 깨끗한 에너지(SDG7),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불평등 감소(SDG10), 기후변화 대응(SDG13),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SDG16), 글로벌 파트너십(SDG17)' 등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30여 년 동안 빈곤국가에서 통합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위기인 코로나19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UN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연대를 강조하며, UN체제의 세 가지 대응방안으로 '대규모의 포괄적인 보건대응', '사회경제적, 인도주의적, 인권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생명과 생계보호', '코로나19 이후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혁신적 복구 프로세스'를 발표했다⁵⁾.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코로나19 대응 노력 속에서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기업, 현지단체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스크, 위생용품, 진단키트 등 대규모 물량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감염을 예방시키고 현지정부의 감염병 진단역량을 강화시켰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위생교육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득증대 활동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국가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비전 2030'을 수립함에 있어 굿네이버스 정신과 함께 SDGs에서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을 미래 방향으로 설정했다. 굿네이버스는 향후 2030년까지 '굿네이버스: 함께하는 이웃, 변화하는 공동체(Good Neighbors: Empowering People, Transforming Communities)'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좋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동시에 전 지구적인 목표인 SDGs 달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장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굿네이버스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굿네이버스가 국제개발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여한 SDG는 전체 17개 목표 중 12개이다. 12개 SDG 목표별로 굿네이버스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SDG 타겟을 명시하고, 굿네이버스의 연간 사업평가 데이터인 ADC(Annual Data Collection)를 바탕으로 5년간의 주요 사업성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목표별로 대표적인 굿네이버스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사업 사례를 소개한다.

[SDGs와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사업]

SDG 1. 빈곤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호(임시주거, 위생키트, 식량, 비식량물품(NFI), 아동친화공간(CFS), 심리사회적지원(P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위험경감(DRR)사업 (재난 대응 역량 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대피소) 재건복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저축신용그룹(VSLA) 협동조합 소액금융기관(MFI)
SDG 2. 기아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식량지원 영양식지원(영양실조 예방) 종자/비료은행, 가족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농축산 기술교육, 영농 투입물 지원, 수확 후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 가공·유통 지원사업 (창고, 기술교육) 지속가능한 농업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업 교육)
SDG 3. 건강과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보건사업(MCH) 생리위생관리사업(MHM) 성생식보건사업 지역보건원(CHW) 조직 및 지원 소외열대질환사업(N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위원회 조직 및 지원 영양지원사업 질병예방사업(건강검진, 예방접종, 모기장 배분, 필수약품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기초보건교육 모바일 클리닉 운영 보건시설지원
SDG 4. 양질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 개선 교사 교수역량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교사환경 및 역량강화 지원 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사 위원회 조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권리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아/아동클럽 운영 여아(취약계층) 교육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아 친화적공간, 여자 기숙사, 생리대 지원 교육비 및 교보재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문해교육 청소년·성인 대상 직업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블릿PC, 미디어 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SDG 5.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소녀 역량강화(여성경제역량강화, 여성리더십 강화, 여아클럽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기반폭력(GBV) 대응 남성·남아 참여활동 지원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시설지원(우물, 물탱크, 화장실 등) 기초위생교육 식수위원회 조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주도형 화장실개선사업(CLTS) 학교주도형 통합위생사업(SLTS) 	
SDG 7. 깨끗한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력 발전사업 태양광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적정 에너지원 개발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창업지원 	
SDG 10. 불평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생계지원 	
SDG 13.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인식 증진 교육 환경보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적응 농업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SDG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시민교육 아동권리교육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자치활동 지원(Child Club)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권리보장 위한 대정부 활동(정책제안) 성평등 캠페인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개발위원회(CDC) 조직 및 협력 현지 정부 및 NGO 협력 INGO 및 시민사회단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협력사업(WFP, UNHCR, IOM, WHO, UNDP, UNCDF, UNICEF, UNESCO, UNFPA, UNOPS, IVI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차원의 SDGs 이행 및 점검 참여(UN HLPF)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 모니터링 참여

5) UN(2020). United Nations Comprehensive Response to COVID-19: Savings Lives, Protecting Societies, Recovering Better.

※ 하나의 프로젝트는 사업 구성에 따라 다수의 SDG에 연계되지만 위의 표는 사업 목적에 따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SDG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음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굿네이버스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빈곤인구를 근절하고(SDG 1.1), 지역주민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통한 자력화를 지원한다(SDG 1.4).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한 사람들의 재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SDG 1.5).

굿네이버스는 소득증대그룹과 조합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교육, 소액금융, 마을저축신용그룹(VSLA)을 통해 자원접근성을 높여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반을 조직해 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건복구와 함께 재난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저축신용그룹(VSLA), 소액금융(Micro-finance), 경제 역량강화 활동 참여자 수(2018~2019)

22,008 명

총 22개국



지역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된 사람 수 (201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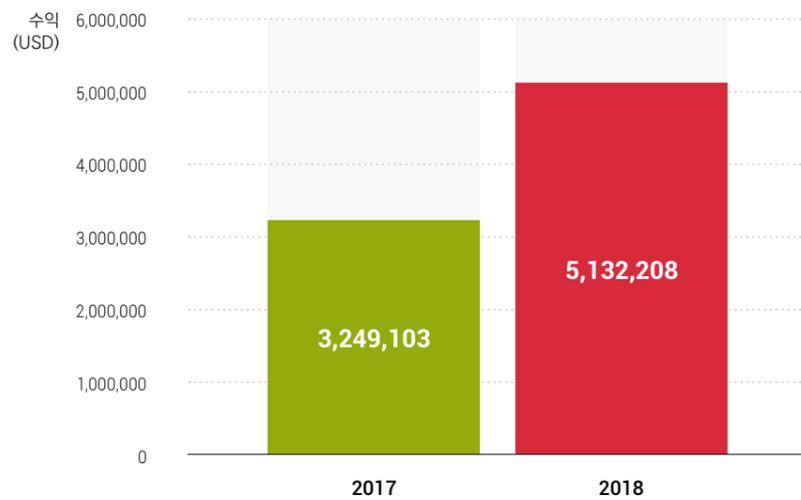
399,348 명

총 9개국



소득증대그룹, 조합 활동으로 얻은 수익 변화

11개국 (Green)
22개국 (Red)



2018년 수익

5,132,208 USD

| 부가가치를 통한 소득 증대 |

방글라데시 겨자 씨앗 오일 생산자 조합

방글라데시는 전체 인구의 약 78%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주로 농작물을 중간상인에 판매하는 단순한 형태의 1차 농업 활동으로 인해 대부분이 눈에 띄는 소득증대를 일구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2015년 도하(Dhohar) 지역개발사업장(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CDP)의 지역 농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에 농작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조합에 대한 지원을 자발적으로 요청했다. 굿네이버스는 심사를 거쳐 주민의 주체적 활동으로 설립된 겨자 씨앗 오일 생산자 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조합원에게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기계 조작 방법과 품질관리, 상품 판매와 마케팅, 식품 표준 인증 취득까지 겨자 씨앗 오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 전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조합운영을

위해 2015년, 2019년에 걸쳐 굿네이버스

회전기금(revolving fund)이 투자됐다. 그

결과 조합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94,316(한화 1억 1천만 원)의 매출과

\$19,357(한화 2,265만 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겨자 씨앗 오일 조합은 기존의 단순 농작물

재배를 통한 판매구조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를 더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조합 규모를 확장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사진: 조합에서 생산한 겨자씨앗 오일 상품 / 생산한 오일을 분류하고 있는 조합원들]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필리핀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증진을 위한 저축그룹 활동

굿네이버스 필리핀은 2019년에 산 페드로(San Pedro) 지역에 살고 있는 2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저축그룹(Women's Savings Group)을 조직해서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 모임이나 조직적 활동이 금지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저축그룹은 기존에 저축해 놓은 공동자금(Social fund)을 이용해서 식량을 구매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룹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한 끝에 별도로 'Micro Business Pandemic Loan'이라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대출을 마련했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긴급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조직을 통해 상부상조하며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사진: 산 페드로 지역 여성저축그룹 정기회의 진행 모습]



기아종식, 안전하고 영양이 개선된 식량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빈곤이나 지리적 환경 등으로 인해 식량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SDG 2.1/2.2), 식량 안보가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를 비롯한 미래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 개발, 농업생산성 향상 등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식량 확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SDG 2.3/2.4).

굿네이버스는 긴급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식량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영양식, 급식을 지원하여 영양 상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종자-비료은행, 가족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축산 가공과 유통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주도적 식량안보 강화 프로그램 진행과 기후변화 대응 농법을 보급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식량안보 대응력을 강화한다.

복합미량영양소를 제공받은 아동 수(2016~2017)

92,850

명

총 27개국



지역 주도적인 식량안보 프로그램 참여자 수(2018~2019)

146,458

명

총 14개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법을 적용한 농부 수(2018~2019)

60,840

명

총 9개국



[사진: 계단식 농지에서 농사짓는 주민들]

| 통합적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기아종식 실현 | 르완다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SZHC) 사업

르완다는 지리적 조건과 천연자원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로 2011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187개국 중 166위에 머물렀다. 특히 나마가베 지역은 대표적인 산악지역으로 가파른 경사, 토지 산성화 등으로 농업생산력이 낮았다.

굿네이버스 르완다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르완다의 극심한 빈곤과 낮은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했다. 주민들과 함께 계단식 농지 개간(terracing)을 하여 337.76ha를 농사 가능한 토양으로 만들었고, 습지대 57ha를 재생시켰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작물재배를 위한 아이리시 포테이토, 카사바, 콩, 과일 등 씨앗을 지원하고, 농부 531명에게 농업과 가축사육 기술교육을 제공했으며,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 안전한 식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를 개선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사진: 계단식 농지 개간작업에 참여한 주민들]



방글라데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영양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는 2019년에 시작한 '보차간지 마을보건요원을 활용한 모성보건 증진사업'과 연계해서 코로나19 긴급 식량을 지원했다. 주민들에게 총 2회에 걸쳐 쌀 8kg, 펄스(pulse, 방글라데시 곡물) 2kg, 설탕 1kg, 소금 1kg 등을 배분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총 1,400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식량을 배분할 수 있었다.

이번 지원은 방글라데시 유명 tv채널인 Jamuna TV를 비롯해서 전국단위 신문으로 보도되었고, 발빠른 대응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이 굶주리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



[사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배분]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굿네이비스는 질병과 열악한 보건 환경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지원한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아동사망률을 감소시키고(SDG 3.2), 안전한 출산을 통해 모성사망률을 낮추며(SDG 3.1),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NTD), 감염병이 퇴치되도록 예방 및 치료 사업을 수행한다(SDG 3.3).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지역보건원(CHW) 동원, 보건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접근을 취하여(SDG 3.c)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굿네이비스는 아동과 모성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필수 예방접종, 건강검진, 필수약품 등 기초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관리와 안전한 분만을 돕는다. 성·생식보건사업, 생리위생관리사업(MHM)을 통해 여성과 여아의 건강할 권리를 향상시키고, 소외열대질환사업(NTD)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원(CHW), 보건위원회를 조직하고,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때에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검진 받은 아동 수 (2016~2019)

1,607,218 명

총 31개국



성생식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2016~2019)

139,141 명

총 27개국



보건/식수위생사업에 참여한 지역 보건원(CHW) 수(201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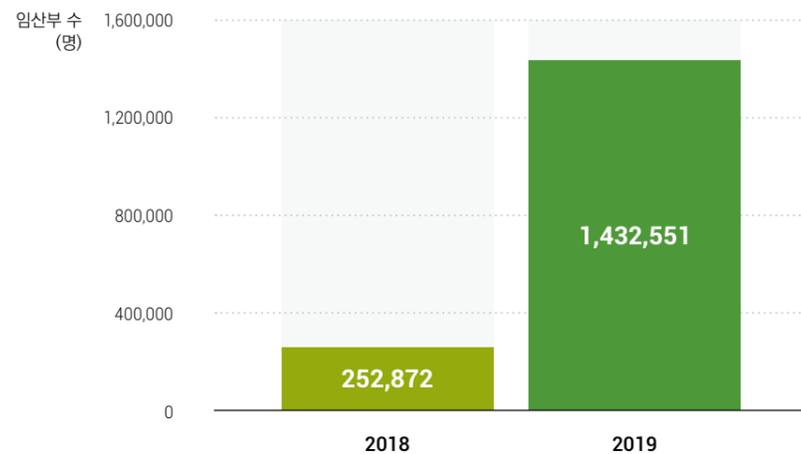
67,346 명

총 30개국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받은 임산부 수 변화

11개국
13개국



2019년 임산부 수

1,432,551 명



|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 구축 |

탄자니아 지역보건원(CHW) 활용 모성건강관리사업

UNICEF⁶⁾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탄자니아의 모성사망비(MMR)는 기준 출산 10만 명 당 398명으로 영유아 및 모성사망률 상위 10개국(전 세계 61~66% 차지)에 포함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업조사 결과, 탄자니아에서도 특히 시골지역은 보건시설과 보건서비스가 매우 열악했다. 이에 굿네이비스 탄자니아는 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키사푸 군에서 지역보건원(CHW)과 함께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했다. CHW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전문의료인은 아니지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후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임산부를 비롯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건소에 갈 수 있게 돕는다.

굿네이비스는 보건시설 개선, 의료인력 역량강화, 주민들의 모자보건 인식증진 활동을 비롯해 CHW를 적극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산전·산후관리를 받고, 안전하게 출산하며, 주민들이 보건소를

잘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8년에 키사푸 군에서 4회 이상 산전관리를 받은 산모는 2016년 대비 37% 증가했고, 분만 후 48시간 이내에 산후관리를 받은 산모 비율은 2016년 대비 83% 증가했다. 숙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은 2016년 대비 9% 증가하고, 임산부의 산전관리 필요성을 인지한 남편의 비율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30% 증가했다. 이와 같이 지역구성원과 같은 언어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CHW의 활동을 통해 키사푸 군의 모자보건의 향상이 되고, 지역사회의 보건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었다.



[사진: 가정을 방문해서 엄마와 아이들에게 기초보건교육을 하는 CHW / 모자보건 사업 활동 중인 키사푸 군 CHW]

굿네이비스
코로나19 대응

방글라데시 CDP 코로나19 감염 예방지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위생환경 개선과 행동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굿네이비스 방글라데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무지브나가 및 깔라이 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감염 예방사업을 수행했다. 각 CDP에서 주민들에게 위생교육을 제공하고, 무지브나가 읍 1,125가구와 깔라이 읍 1,445가구에 비누, 마스크, 가루세제 등 위생용품 패키지를 배분했다. 대중교통 소독을 실시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시장운영위원회와



협력해서 위생환경이 열악한 시장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손씻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매일 2시간씩 오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광고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소통과 정보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굿네이비스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보건안전망이 구축되고, 주민참여와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 무지브나가 읍 위생용품 키트 지원]

6) UNICEF(2017). Tanzania Maternal and Newborn Health Disparities.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굿네이버스는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SDG 4.1/4.2/4.5), 청소년과 성인의 직업 기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지원한다(SDG 4.3/4.4/4.5/4.6). 이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발달에 관한 이해, 효과적인 지식 전달 방법 등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DG 4.c).

굿네이버스는 초·중등교육을 포함하여 미취학 아동 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 문해·산술교육, 생활기술 교육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시설 및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미디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교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성인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 교육시설 수
(2016~2019)

14,304 개소

총 33개국



교사교육을 받은 교사 수
(2018~2019)

8,546 명

총 28개국



문해 및 산술교육 수료자 수
(2016~2019)

34,365 명

총 1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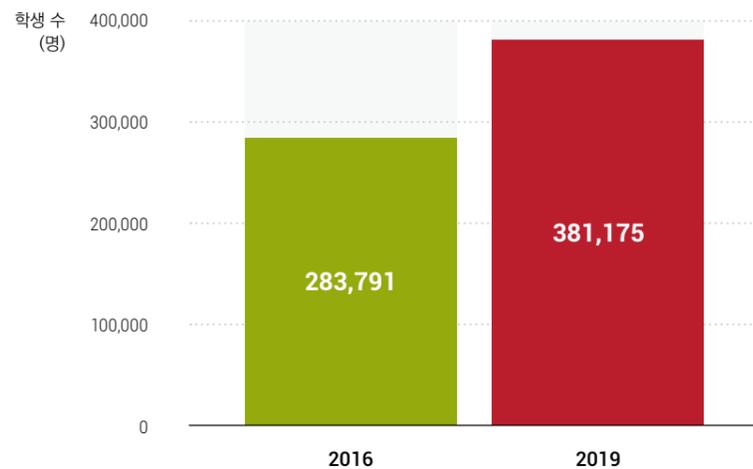


굿네이버스가 지원한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

21개국
25개국

2019년 학생 수

381,175 명



| 아프리카 아동의 교육권 보장 | 굿네이버스 희망학교지원사업

국제사회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교육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굿네이버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리카 12개 국가에서 58개 희망학교를 건축하고 62,050명의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아동의 전인격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생하는 '학교 중심의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교육을 포함한 보건, 식수위생, 소득증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지 교육 수요에 따라 학교 건축부터 급식 지원, 아동클럽, 직업교육훈련, 부모 교육, 교사연수, 아동보호위원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한 결과 교육효과성과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시민의식 형성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국가별 평균 교실 1개 당 학생수가 112명에서 72명으로 감소했고, 희망학교 재학생들의 졸업률 상승(평균 72%→83%)은 학업의 지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평균 진학률이 66%에서 80%로 높아졌다. 그리고 희망학교 재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유대감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희망학교 3.98점, 비희망학교 3.81점). 이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아동청소년들은 학습과 미래, 공동체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진: 굿네이버스 희망학교와 아이들]



"우리 학교에는 미디어센터, 컴퓨터실, 실험실 등 좋은 시설이 있어요. 저는 미디어 동아리에서 직접 대본을 쓰고, 컴퓨터와 카메라 사용법을 배워서 촬영도 해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고, 특히 미디어 동아리에서 영상편집 기술을 배우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 Mustafa / 과라라 투마이니 중등학교 미디어 동아리 회장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파라과이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송 제작 지원

파라과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2020년 말까지 휴교령이 내려졌다.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굿네이버스 파라과이는 기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교육방송(EBS),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협력하여 'Good Kids'라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제작했다. Good Kids는 초등학생 대상 스페인어, 과라니어 교육과 아동권리 교육을 포함한 총 103편의 교육방송으로, 5월부터 방영되어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매일 TV를 보며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라과이 현지 프로덕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여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교육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교육 단절 상황에서도 많은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

[사진: 가정에서 'Good Kids'를 시청하는 아이들]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굿네이버스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능동적으로 비차별과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 소외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SDG 5.1), 이들의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SDG 5.5). 특히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SDG 5.6).

굿네이버스는 인도적 지원과 지역개발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고려한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며, 지역 자치조직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한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여아클럽을 조직하고 남아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성 인지와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e)을 높이는 등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과 옹호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 및 여성권리 관련 교육/옹호활동 수(201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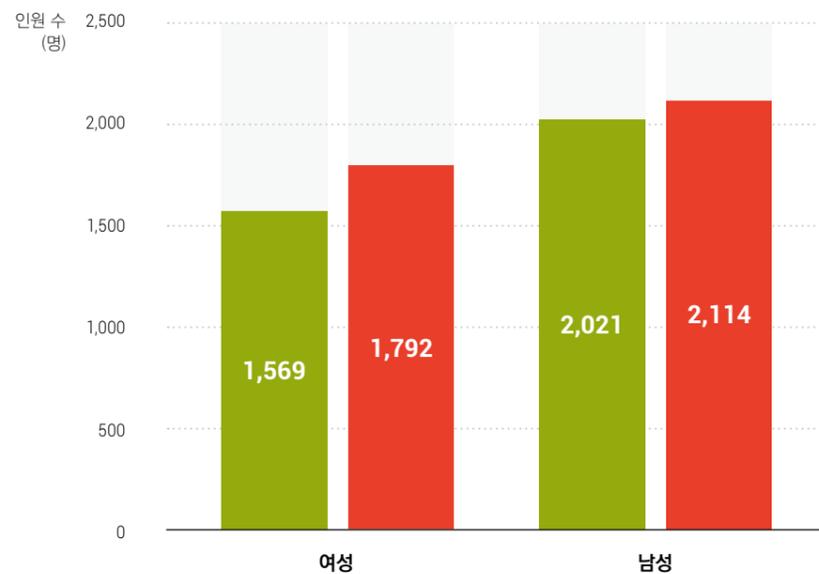


CDC 구성원 중 여성 비율
총 26개국/28개국

2016
2017

여성 비율 증가율
14.2%

남성 비율 증가율
4.6%



| 여성 난민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삶을 위한 노력 | 로힝야 난민 젠더기반폭력(GBV) 대응 사업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의 절반 이상은 여성과 아동이다. 이들은 여러 형태의 차별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많은 로힝야 족 여성과 여아는 남성의 폭력과 학대로 고통 받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2019년에 남성을 포함하여 총 2,073명에게 성을 기반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에 관한 인식향상 교육을 제공하여 GBV를 예방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82명의 여성, 여아와 상담을 진행하여 GBV 생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피난 과정에서의 충격과 사회적 갈등으로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 여아 90명에게 심리사회적지원(PSS)을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GBV 생존자들이 필요할 때 즉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과 협력하여 외부의뢰지원체계(Referral pathway)를 구축하고, 생계지원, 생활기술 교육을 비롯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굿네이버스는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발생하는 GBV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 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 여성권리 향상을 위한 어머니의 날(Mother's Day) 프로그램 진행]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네팔 여성 및 여아청소년 생리 위생 증진을 위한 지원

네팔의 성불평등 지수는 2018년 기준 0.476⁷⁾이며 177개국 중 124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특히 '차우파디' 관습은 생리를 불순한 것으로 생각하여, 여성들은 생리기간동안 별도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성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굿네이버스 네팔은 기존에 여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생리위생관리(MHM)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 및 여아청소년을 위한 위생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건강을 위한 어머니 그룹(HMG)과 여성지역보건봉사자(FCHV)에게 생리위생키트를 배분하고 아동,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40개 학교, 16개 보건소 및 주요 보건시설에 위생장비를 지원했으며, 손씻기 시설과 정수기를 설치했다. 굿네이버스는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의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네팔의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 UNDP Gender Inequality Index(GII),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0은 완전한 성평등을 의미함.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굿네이버스는 깨끗한 물과 위생환경 개선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적정 가격으로 안전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DG 6.1).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위생습관과 행동이 변할 수 있게 교육하고(SDG 6.2), 수질을 개선하여(SDG 6.3) 수인성 질병 감염을 예방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식수위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SDG 6.b).

굿네이버스는 우물, 물탱크, 화장실 등 식수위생 시설을 지원하고 정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한다. 기초위생교육을 제공하고, 주민주도형 화장실 개선사업(CLTS), 학교주도형 통합위생사업(SLTS) 등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식 증진과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식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식수위생 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 깨끗하고 충분한 물 접근성 개선 | 케냐 메구아라 농촌지역 저수댐 축조

20년 전, 케냐 트랜스마라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용수와 가축 사육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5km 이상을 2시간 넘게 걷는 게 일상이었다. 이마저도 사람과 가축이 마시는 물이 분리되지 않아서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가축에게 목초를 먹이기 위해서 가장과 남아들이 가축 떼를 몰고 먼 길을 떠날 때면 가족의 일시적인 해체, 학습 결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트랜스마라 메구아라 농촌지역에 저수량 14만 톤의 저수댐을 축조했다. 댐 완공으로 주민 7천 명과 가축 2만 5천 마리가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게 되었고, 사람과 가축이 먹는 물을 분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이 감소했으며, 학교 등록률 또한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굿네이버스는 2002년에 댐을 주민들에게 위임했고, 주민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댐을 관리했다. 2018년에 지역정부는 메구아라 전체 지역(11개 마을, 인구 약 6천 명)에 송수관 연결을 위한 저수조 3개를 추가 건축했고, 활용범위가 농업용, 가축용, 상수도용으로 확대되는 등 댐은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주민들의 최우선 필요에 부응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사진: 메구아라 저수지 전경]

| 안전한 물과 위생을 통한 건강 증진 | 모잠비크 지역 기반 식수위생환경 개선 통한 수인성질환 관리사업

설사는 대표적인 수인성 질병으로 모잠비크에서 설사 때문에 사망하는 5세 미만 영유아 비율은 9%이며(2016년 기준), 인구의 약 53%가 깨끗한 식수 접근이 어렵고, 약 76%는 기초위생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 모잠비크는 수인성 질병 감염 경로의 주요 요인인 야외배변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주도형 화장실개선(CLTS) 활동을 중심으로 식수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LTS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가구별 화장실을 구축하는 활동으로,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마을 내 CLTS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각 마을 대표 48명과 자원봉사자 40명을 선발하여 훈련시켰고, 정부관계자 38명이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마을에 태양광 활용 급수시설 3개와 보건소 9곳에 개선된 화장실을 설치했고, 위생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 매뉴얼을 개발했다. 2020년 현재 학교 29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2021년까지 주민들과 함께 18개 마을에서 야외배변을 종식시키고, 총 32개의 식수시설을 설치 및 보수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모잠비크의 식수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과 주민의 건강을 보장할 것이다.



[사진: CLTS 활동으로 만든 화장실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주민]

개선된 급수시설 수
(2016~2019)

1,926 개

총 31개국



개선된 화장실 수
(2016~2019)

5,620 개

총 29개국



사업지역에 배분한 가정용 정수장비
혹은 정수 필터 수(2016~2017)

37,515 개

총 19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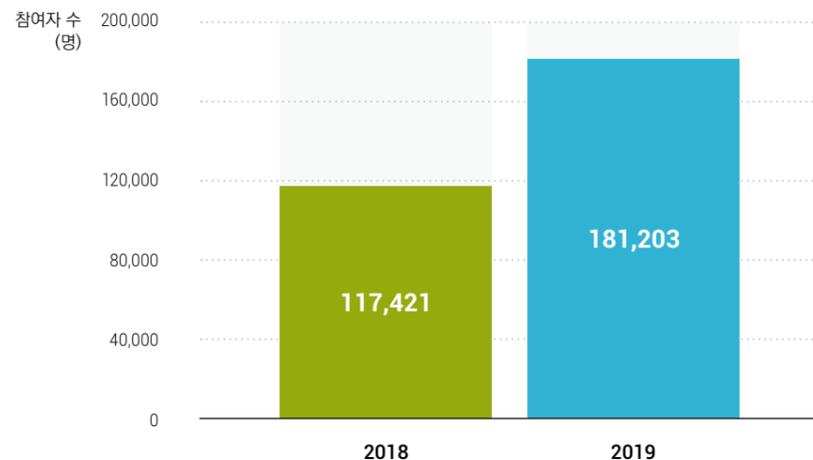


식수위생(WASH) 프로그램
참여자 수

21개국
26개국

2019년 참여자 수

181,203 명



에티오피아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에티오피아는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했다. 수도권 중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코로나19 정보가 부족하고,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굿네이버스가 활동하는 지역은 위생환경이 열악하고 빈곤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 매우 취약했다. 이에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의 지원이 잘 닿지 않는 낙후된 지역 40여 곳을 중심으로 물탱크를 설치하고, 개인위생을 위한 손씻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동식 스피커를 활용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각 가정에는 손 소독제, 비누 등 기본적인 위생용품들을 배분했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 방송(OBS)으로 보도되는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다.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굿네이버스는 취약계층이 적정가격으로 현대적 에너지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DG 7.1).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며(SDG 7.2),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DG 7.3).

굿네이버스는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소수력 발전 등 에너지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정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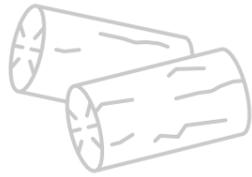
저소득층 전기에너지 사용 가격 (캄보디아 에너지 개발지원사업)

기본 대비
25% 감소



난민을 위한 에너지원(숯) 생산량 (탄자니아 난민지원사업)

(2019년, 난민 1,200명 참여)
30,000 kg



|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에너지 공급 |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에너지 개발 지원 사업



캄보디아는 부족한 전력량과 비싼 전기료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기에너지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굿네이버스는 바탐방 및 반띠민찌이 농촌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KOICA, GS칼텍스와 협력해 2011년 굿솔라 적정에너지 기술센터를 설립했다. 2013년에 태양광 전력 생산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교육을 제공했으며, 2014년에는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A/S를 진행했다.

대체에너지 공급시설 확대와 태양광 에너지제품 공급을 통해 2013년 기준으로 주민들은 기존 대비 25%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하게 됐고, 2014년에는 저소득층 전력에너지 지출비용을 평균 5달러 감소시키며 에너지 접근성 및 보급률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지역주민 고용 창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환경개선의 성과 역시 거두었다. 2018년에는 태양광 흡수시스템,

[사진: 굿솔라 태양광 에너지 제품]

태양광 워터펌프 등에서 약 \$110,000 매출이 발생하여 신규 사업과 아이টে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⁸⁾를 모색하는 등 굿네이버스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적정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교실에서 굿솔라 랜턴을 들고 있는 아이들]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마련을 위한 노력 | 탄자니아 난민 숯(Charcoal Briquettes) 생산 지원 사업

탄자니아 키고마 지역 난민캠프에서는 가구의 약 95%가 장작을 사용해서 요리를 한다. 하지만 썰감으로 사용되는 장작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삼림을 황폐화시키고, 장작을 구하기 위해 캠프 주위의 숲으로 먼 길을 오가는 사람이 주로 여성이나 소녀들이라는 점에서 젠더기반폭력(GBV)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UNHCR와 협력하여 캠프 내 난민들이 장작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대안으로 숯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콩고 난민 600명, 부룬디 난민 60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2주 과정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았고, 교육 수료자들은 가정에서 직접 숯을 만들어 쓸 수 있게 수동 압축기, 플라스틱 건조 시트, 개인보호장비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받았다. 해당 교육을 통해 총 30,000kg의 숯이 생산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됐고, 교육 참여자들은 각각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여 명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전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숯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굿네이버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



[사진: 난민캠프에서 숯을 생산하고 있는 난민들(incentive workers)⁹⁾]

8) (1) 태양광: 계통연계형(Tied Grid System) 제품 개발, (2) 정수기: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과 적정기술을 이용한 가정용 정수기 개발, (3) 정수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펀드를 통한, 수처리시스템(정수장) 개발, (4) 나무펌프: 메리쿰과 연계하여 나무펌프 개발
9) 난민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굿네이버스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제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SDG 8.3). 또한 주민들이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완전한 고용과 양질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SDG 8.5).

굿네이버스는 사회적연대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역의 수요와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자생력을 지닌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정신을 비롯하여 자본 조달, 생산·유통·판매를 관리하는 경영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및 주민들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 수료자 수(2016~2019)

2,478 명

총 17개국



사회적 기업 수(2017~2019)

6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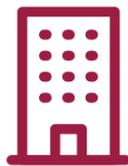
2017

10 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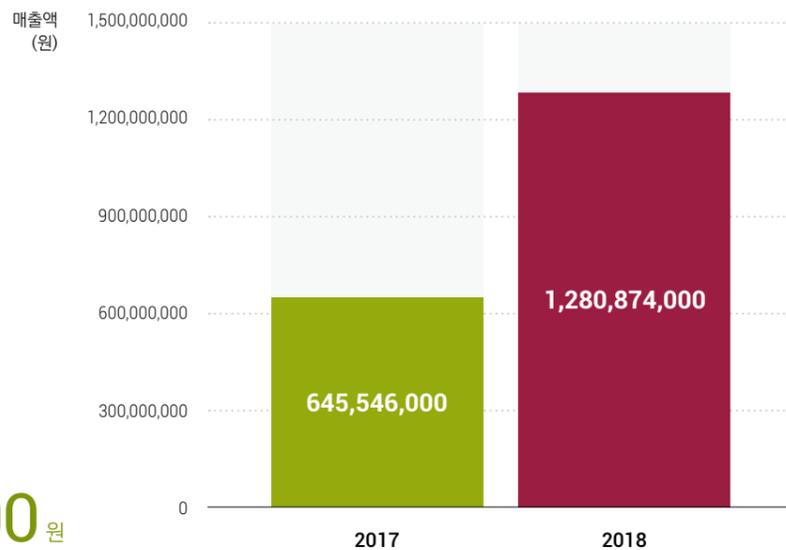
14 개



2019

사회적 기업 연간 매출액

2017
2018



2018년 매출액

1,280,874,000 원



|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 |

키르기스스탄 SBE택시

키르기스스탄은 지속적인 경제 저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미혼모나 여성이 가장인 경우에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성차별로 인해 키르기스스탄 여성의 소득은 남성소득의 79% 수준이다. 굿네이버스는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사회적기업인 SBE(Sustainable Business for Everyone)택시를 운영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SBE는

택시를 직접 구매해서 취약계층인 무슬림 여성들을 택시 운전사로 고용하고, 운전, 고객서비스, 행정 등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여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9명의 여성 운전자가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2019년 140달러에서 2023년 368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2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개인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삶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여성 자립을 위한 키르기스스탄 SBE 택시]

| 다국가 협력을 통한 양질의 제품 개발과 착한 소비의 확산 | 몽골 터드일츠(Tod Ilch) 협동조합

굿네이버스는 해외 사업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판로를 확보하고자 굿네이버스 독자 브랜드인 '메리콧'을 론칭했다. 메리콧은 2017년 한국의 니트 전문브랜드인 '리플레인(RePLain)'의 디자인 재능기부로 시작되어 몽골 '터드일츠(Tod Ilch) 협동조합'과 협력에 성공했다. 리플레인이 캐시미어 제품의 기획, 디자인, 마케팅, 영업을 진행하고, 터드일츠 조합에서 제품을 제작해서 한국으로 수출 및 판매하는 사이클이다. 터드일츠 조합은 리플레인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여성스웨터, 아동가디건, 스카프, 머플러, 모자, 장갑 외 5가지 종류의 스카프 등을 추가로 생산했고, GIVESTORE, Wconcept, WIZWID, 10X10, 29CM, HAGO, UNDERSTAND AVENUE 등 온-오프라인 유통 및 판매처 일곱 곳을 확보했다. 몽골에서는 터드일츠 조합원에게 캐시미어 제품의 제작 기술을 교육하고 한국 디자이너와 협력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높였고, 2019년에는 세 번째 몽골 캐시미어 액세서리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론칭하여 조합원의 소득이 7.4배 증가하는 등 협동조합을 통해 양질의 제품이 개발되고,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성과를 낳았다.

[사진: 몽골 터드일츠 조합원과 조합 생산 제품]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굿네이버스는 인종과 국가, 종교, 사상 및 지역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세계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포용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SDG 10.2). 그리고 난민 중심의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강제 이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SDG 10.7).

굿네이버스는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위원회(CDC)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양, 식수위생, 보건의료, 교육, 심리사회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민이 자긍심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원주민(Host Community)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개발위원회(CDC) 수(2016~2019)

885 개
총 3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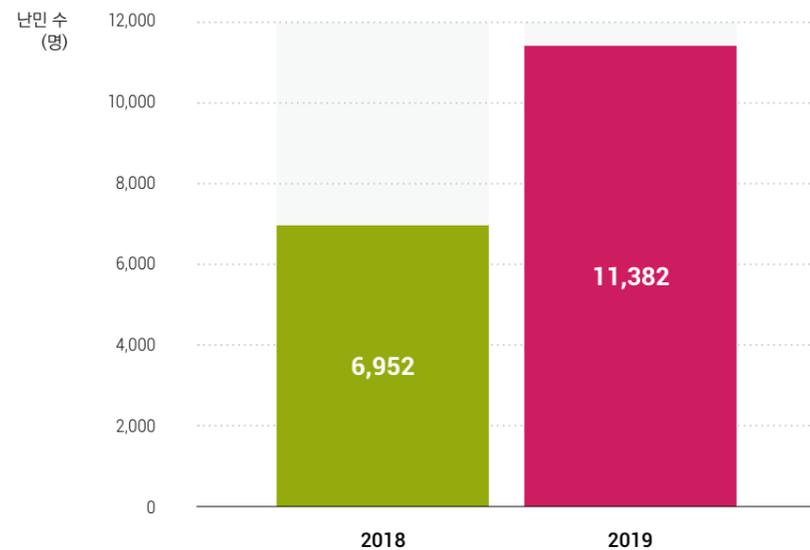
난민 프로그램 참여 원주민 수(2019)

1,679 명
총 2개국



난민 프로그램 참여 난민 수

■ 4개국
■ 4개국



2019년 난민 수

11,382 명



| 난민의 성평등 보장 및 여성의 자립 역량 강화 | 우간다 내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성·젠더기반폭력(SGBV) 위험 경감 사업

우간다 내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은 2019년 기준 약 38만 명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전체 난민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낮고, 권력에 따라 의사결정과 갈등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폭력과 차별에 특히 취약하다.

이에 굿네이버스 우간다는 난민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성, 여아 등 취약계층 보호에 특히 힘쓰고 있다. 성·젠더기반폭력(SGBV)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여성 난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립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SGBV 인식향상 교육을 비롯해서 2019년에는 여성개발센터(Women's Development Center)를 건축하여 재봉기술을 비롯한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여성 친화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다양한 소득증대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에 참가한 12명의 여성 난민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NGO와 협력하여 면 마스크 5,600개를 제작하기도 했다. 굿네이버스는 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 면 마스크 제작중인 여성 난민]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우간다, 스리랑카 지역 기반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사업

도시빈민과 소수민족은 대부분 정부 및 지역 행정과 격리되어 있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다. 우간다 도시빈민과 스리랑카 캔디지역 차발 노동자인 타밀족(소수민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이 급증하고, 가계수입에 큰 타격을 받아 식량부족, 위생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KOICA와 협력하여 우간다 도시빈민 82,000명과 스리랑카 농촌주민, 소수민족 3,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필수품과 긴급식량을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로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료시설에 진단키트를 지원했으며,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역키트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사진: 우간다 긴급식량지원]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굿네이버스는 기후변화가 빈곤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재난 및 자연재해 회복력을 강화시키고(SDG 13.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향상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SDG 13.3).

굿네이버스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민에게 기후변화 적응 농법과 기술을 교육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실행하여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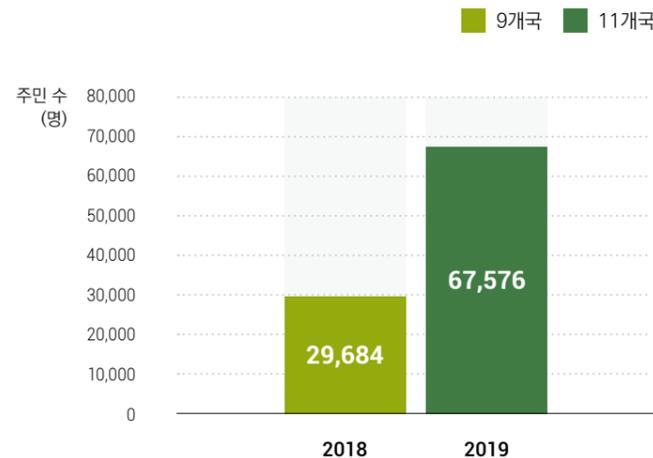
생활폐기물 관리, 재활용 실행 주민 수 (2018~2019)

58,332 명

총 9개국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실행 주민 수



| 삼림파괴 방지를 위한 혁신기술의 솔루션 | 미얀마 농업부산물 왕겨취사탄 개발 및 판매 사업

미얀마는 취사 연료로 나무 숲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산림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년에 3모작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정미소에서 쏟아지는 왕겨를 불법적으로 강에 버리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굿네이버스는 버려지는 왕겨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2017년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검토를 시작했고, 숲 대체용으로 연소효율이 좋은 농업부산물(왕겨) 취사탄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개발에 착수했다. 굿네이버스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인 굿브리켓(Good Briquette)에서 왕겨취사탄을 제조해서 소매업자에 넘겨 유통마진을 확대하고, 지역가구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해서 가처분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게 됐다.

굿네이버스는 굿브리켓을 통해 미얀마에서 사용하는 기존 숲 대비 낮은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절감시키고, 이를 통해 빈곤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굿네이버스 미얀마가 협력하는 쌀 조합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왕겨를 원료로 구매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왕겨취사탄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료 접근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환경보호 효과 또한 기대된다.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보호 문화의 확산 | 칠레 발파라이소 쓰레기 재활용 사업

칠레 발파라이소 지역은 도시 전체에 쓰레기 매립지 170여 개가 형성되어 있어 위생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사람들의 환경보호 중요성에 관한 인식 또한 부족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넘쳐나는 실정이었다. 굿네이버스 칠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 수거차량을 지원하면서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했다. 특히 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경교육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흥미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레씨클라톤(Reciclato)'이라는 재활용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한 달 동안 재활용품을 가장 많이 모은 학교에 포상했다. 이 대회에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는 2017년 10,741kg, 2018년 10,116kg으로 매우 많았고, 이 재활용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은 학교의 환경교육에 사용됐다. 굿네이버스는 빈곤 감소와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 우리 이웃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발파라이소 지역에는 분리수거 문화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굿네이버스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재활용과 분리수거 문화가 정착돼가고 있어요.” - 안드레아 / 발파라이소 지역 정부 환경부 직원



[사진: 선생님과 함께 분리수거 하는 아이들 /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환경 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굿네이버스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폭력이 감소되고(SDG 16.1),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착취, 매매 등 아동폭력 종식을 위해 활동한다(SDG 16.2).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SDG 16.7).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출생등록을 비롯한 아동권리교육,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아동클럽, 아동위원회, 아동총회 등 다양한 형태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및 국가의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옹호활동을 펼치며 국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출생등록 아동 수
(2016~2019)

205,75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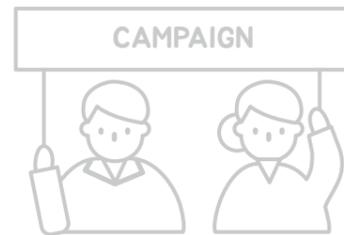
총 21개국



아동권리 캠페인 시행 횟수
(2018~2019)

974 회

총 25개국



아동클럽, 아동위원회, 아동총회 수
(2016~2017)

1,056 개

총 22개국



정책옹호활동으로 정책, 법, 시스템 등이 변화한 횟수
(2016~2019)

30 회

총 10개국



| 인식 향상을 넘어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 | 몽골 아동권리옹호사업

굿네이버스 몽골은 2011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울란바토르시 지역정부, 공공기관, 기업과 협력해 아동권리교육, 성학대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모 교육 등을 진행했는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전체 아동의 31.3% (385,494명)가 참여했다. 30개 학교에서 아동 클럽을 조직하고, 가정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했으며, 몽골 전역에 아동권리 TV 방송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몽골 중앙정부 국무총리 산하 아동위원회의 회원기관으로 위촉되었고, 매년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 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갔다. 2016년 몽골 인권위원회와 전국 단위의 아동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제언한 내용이 국회 시행명령에 반영되었고, 그 해 7월에 굿네이버스 몽골은 수년간의 아동권리보호사업 경험을 토대로 '몽골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를 위한 대안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 이후 '제75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사전심의'에 참석해 몽골 아동의 시민권 및 표현의 자유, 기초건강과 복지, 교육권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제언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했으며, 2017년, 몽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굿네이버스의 제언사항 중 12개 항목이 반영되는 등 사회제도 변화의 발판 마련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 몽골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 변화 | 방글라데시 조혼 방지 '좋은 아빠 캠페인'



2016년 UNICEF 조사¹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여성의 52%가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이 중 18%는 15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는 등 조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는 조혼을 방지하고 아동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권리옹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016년에 진행한 '좋은 아빠 캠페인(Good Daddy Campaign)'에는 5천 명이 참여했고, 캠페인에 참여한 아빠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이후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더해져 2만 2천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좋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동권리위원회(Child Right Council),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를 조직하고, 조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리더와 학교 교사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킴이(Child Right Keeper)' 그룹을 조직해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결혼시키려는 상황을 발견하면 가정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소녀들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엄마의 길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자신의 의지로 행복한 삶과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사진: 딸을 조혼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선서식에 참여한 아버지와 딸]

10) UNICEF(2014). Ending Child Marriage Progress and Prospects.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굿네이버스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사업국 정부의 SDGs 이행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DG 17.9). 또한 굿네이버스는 개발도상국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SDG 17.14),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SDG 17.16/17.17).

굿네이버스는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정부와 협력하고, 다양한 권리옹호 활동과 함께 정책결정자, 정부관계자들과 정책포럼, 컨퍼런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현지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협력, 국제협력을 통해 전문성, 기술, 재정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UN의 SDGs 이행 점검 과정 및 주요 이슈에 관한 국제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지역 내 협력 그룹 수*
(2016~2017)

3,228 개

총 30개국



*굿네이버스가 협력 지원하는 지역파트너 수
(CDC, Education, Health/WASH, IG, Environment, Advocacy, ER 등)

정책결정자, 의사결정자들과의
논의 진행 횟수*(2016~2019)

508 회

총 28개국



*정책포럼,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수
(2016~2020)

22 개 사업

총 14개국



| 국제 연대를 통한 난민 대응 확대 | 제 1회 글로벌 난민 포럼 공동 공약 발표

굿네이버스는 2019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석했다. 해당 포럼은 2018년에 채택한 난민 글로벌 컴팩트 이행을 점검하고 난민 지원 확대 및 난민 수용국의 부담 공유 등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굿네이버스는 포럼 공식 행사로 마련된 스포트라이트 세션에서 '아시아의 전사회적 접근: 생계, 보호 및 대안을 통한 난민지원 부담 경감'이라는 주제로 외교부, KOICA와 공동으로 회의를 주관하여 난민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이번 포럼에서 일자리와 생계(Jobs and Livelihoods) 분야의 Co-sponsor로 활동하면서 난민 지원 사업 전문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의미는 세계 각국이 공식적으로 난민정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세계 모든 국가의 연대에 의거해서 밝혔다는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외교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시민단체와 함께 2023년까지 이행할 공동 공약(pledge)을 발표했으며, 난민과 원주민에게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고, 그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생계 및 보호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 제1회 글로벌 난민포럼 참석]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미얀마 지역사회 보건·의료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UNOPS)

미얀마는 전통적인 주거형태와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위기에 놓여있고,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부족한 보건인프라 때문에 검사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굿네이버스 미얀마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지 정부의 진단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하는 코로나19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다양한 개발협력기관과 미얀마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협력에 관해 논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 역량 강화 및 지역 보건 증진 프로젝트' 수행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로부터 기금을 받아 코로나19 진단키트(25,000회 검사 분량)를 지원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검체 채취·수송·보존 등을 위한 키트 60,000개를 지원하고, 30,000가구에 위생키트와 위생 정보 팸플릿을 배포하여 국가 및 개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진: 굿네이버스 미얀마 코로나19 긴급지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위하여

굿네이버스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 보고서
2016-2020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발행처	Good Neighbors Global Partnership Center
주소	131 North Tustin avenue, #204, Tustin, CA 92780
전화	+1-877-499-9898
이메일	gngpc@goodneighbors.org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org
기획 및 편집	국제개발정책센터, 굿네이버스 글로벌파트너십센터 한국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이메일	idpc@goodneighbors.org
디자인	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www.maycom5.com
